



김한 광주은행 신임행장이 26일 오후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운영 방침과 경영 소신 등을 밝히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30년 후에도 살아남는 은행 모델 만들것”

김한 광주은행장 취임 인터뷰

광주은행-전북은행 결합 시너지 효과 지역 투자

지역민·지역기업과 끝까지 함께하는 은행 될 것

“앞으로 소통을 어떻게 해나가실 생각입니까?” “술 마셔야죠. 너무 많이 주시진 마세요.”

김한 광주은행장은 26일 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종일관 소탈하면서도 자신있는 모습이었다. 광주은행을 ‘주력 계열사’로 표현하며 깊은 애정을 표시한 김 행장은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의 결합을 통해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광주·전남 지역민이 합쳐져 지켜온 광주은행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경영목표도 제시했다.

다음은 김 행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축하드립니다. 지역민의 기대가 크다.

▲영광이다. 개인적으로 하서 김인후 선생 집안이라 장성이 원래 고향이다. 할아버지 때부터 고장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전남·북에 모두 연고가 생겼다. 그동안 호남지역민들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성장했는데, 앞으로는 광주·전남과 전북이 더욱 잘 사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특히 오늘 이 순간부터는 어떠한 사사로움도 없이 오로지 광주은행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신명을 바칠 각오를 하고 있다.

–광주은행의 도약을 위한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달라.

▲현실적으로 중요한 건 광주은행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1~2년 정도의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집착하지는 않을 것이다. 광주은행이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소망이고 또 목표다. 지금은 이 목표에 집중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 광주은행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 광주은행이 우리금융에 소속돼 있으면서 인프라는 물론 직원 교육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전산서버를 12년째 같은 것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은행 역사상 없었던 일이다.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의 결합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는가.

▲JB금융지주 회장 겸 전북은행장으로 있으면서 광주은행을 인수할 경우의 시너지(Synergy·통합효과)를 돈으로 계산해봤더니 장기적으로 2000억원 정도가 나왔다. 중요한 점은 이 시너지 효과의 대부분을 광주은행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전산시스템만 하더라도 광주은행이 따로 시스템을 갖추려면 700억원이 들지만 전북은행의 최신시스템을 활용한다면 400억원 정도면 가능하다. 이처럼 시너지를 낼 분야는 적지 않다. 남은 돈은 결국 광주·전남지역에 환원될 것이다. (내가) 광주은행장으로 온 것도 두 은행 통합과정에서 최대한의 시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고의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의 차별화 방안이 있는지.

▲광주·전남 및 전북의 정서에 차이가 있는 만큼 두 은행을 통합하기보다는 지금처럼 따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두 은행은 사업구역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인수 후 구조조정이나 지점 통합은 없을 것으로 본다. 또, 대형 은행과 경쟁하기보다는 지역의 규모에 맞는 중소기업이나 서민을 위한 영업에 집중할 생각이다. 구체적인 JB금융지주라는 큰 지붕 아래 광주은행은 지역 기업고객 중심으로, 전북은행은 소매고객 중심으로 각각 운영해 위험을 분산하고 조직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광주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지역공헌활동이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은행의 주요 역할 가운데 하나가 지역사회에 돈을 많이 ‘풀어’ 주는 것이다. 민영화가 된 만큼 현재 10조3000억원 규모인 광주·전남지역 여신을 앞으로는 더욱 많이 늘리고, 여기서 번 돈은 지역에 최대한 돌려줄 계획이다. 또, 전북은

행의 경우 당기순이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했는데, 광주은행도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이 정도 수준은 지역에 되돌릴 예정이다.

–광주은행 조직개편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내부 간부급 인사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수석부행장을 두는 문제 역시 좀더 검토해볼 생각이다. JB금융지주 본사를 어디로 두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엔 그냥 전주에 계속 놔둬야 할 것 같다.

–광주은행이 전북은행에 인수된대 서운해 하는 지역민이 적지 않다.

▲IMF사태가 있어났을 당시 구조조정 위원이었다. 그래서 당시 광주은행의 상황과 그런 광주은행을 힘들게 지키려 했던 광주·전남지역민의 아픔을 잘 알고 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광주은행이 지역 향토은행으로서의 위치와 자긍심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리고 광주·전남 지역민께 드릴 부탁이 있다. 지역은행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사랑해주지 않으면 존재의미가 없다. 요즘 지역은행은 정말 힘들다. 거대 자본을 갖춘 시중은행이나 국제은행과 경쟁해야 한다. 흔히들 ‘은행이 비 오면 우산을 뺐다.’라고 한다. 하지만 그 우산을 가장 늦게 빼앗아가는 누군가는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지역은행이다. 광주은행이 바로 지역민, 지역기업과 끝까지 함께하는 은행이 될 것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80.84 (+0.63)
- ▼ 금리 2.10%(-0.01)
- ▲ 코스닥 547.34 (+1.00)
- ▼ 환율 1106.50원 (-2.60)

광주 부동산 경매 열기 뜨겁다

낙찰가율 98.4% ... 일부 아파트 감평가 넘기도

광주 부동산 시장의 경매 열기가 올해 들어 크게 달아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신규 주택 공급이 적은 탓에 내 집 마련을 위해 경매시장에 뛰어드는 수요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6일 법원경매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25일 기준 광주지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의 경매 낙찰가율은 98.4%로 100%에 근접했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감정가를 뛰어넘는 가격에 낙찰이 이뤄지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 5일 경매에 나온 광주 북구 운암동 남양휴튼 111㎡는 18명이 경쟁에 참여해 감정가의 104%인 2억8999만9000원에 낙찰됐다. 같은 날 경매가 열린 북구 두암동 현대아파트 59.㎡ 역시 11명이 참여. 감정가의 103%인 1억2610만원에 낙찰이 이뤄졌다. 6일 열린 경매에서도 광산구 월계동 첨단금호타운 92.4㎡는 6명이 경쟁해 감정가의 106%인 1억6570만9000원에 낙찰됐다.

20일엔 북구 용봉동 한화꿈에그린아파트 84.9㎡가 9명이 경쟁해 감정가의 107%에 달하는 2억3377만7000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이처럼 낙찰시장이 과열되는 데는 최근 부쩍 상승한 광주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와도 관련이 있다. 3.3㎡당 800만원 넘기는 일이 잦아진 가운데 경매를 통해 낙찰받는 아파트는 3.3㎡당 400~500만원대가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광주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1월 94.17%를 기록한 뒤 매달 감정가의 97~99%에서 낙찰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10월엔 101.3%를 기록, 2013년 8월 104.5%를 기록한 뒤 1년 2개월 만에 100%를 넘어이기도 했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지방에서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져 전세난에 직면 실수요자 가운데 내 집 마련을 위해 경매법정으로 발길을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금·은값, 4년만에 최저

미달러화 강세와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금과 은의 국제가격이 지난 2010년 이후 4년만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26일 한국수입업협회와 현대증권에 따르

면 금 국제가격은 지난 5일 온스당 1140.03달러로 2010년 4월 이후 4년반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금 값은 올해 초 1200원에서 출발해 지난 3월에는 14% 오른 1380달러까지 상승했으나 7월부터는 다시 하락세로 반전했다.

연합뉴스

세 일 글

“광주·전남-한전 동반성장 가교 역할”

이석범 한전 광주전남지역본부장



“한국전력 본사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을 맞아 광주·전남지역과 한국전력이 함께 성장하는데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는 12월1일 부임 예정인 신임 이석범(55) 한전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신산업분야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와 전남이 한전의 에너지 빨리 계획에 힘을 보탬 수 있도록 일조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본부장은 광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거쳤다. 1986년 한전에 입사한 뒤 본사 이천추진차장 및 경제경영연구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전임인 경제경영연구원장 재직시 급변하는 에너지 산업의 현안에 선행연구와 함께 적시 대응전략을 제시해 연구원을 한 단계 도약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신축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신축 4층

룸12개
1층점포1개
2-3층 룸 10개
4층주택 1개
옥탑

월수익500만
매가6억7천
(보4천,용자1억5천)

원룸전문취급
원룸물건 다량있음
(금액 4억~12억)

010-6670-98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건물

1.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사거리 옆 7층 건물사우나
대지 96평/건평 570평
월수익 980만
주인 직접 운영 시
2,000만 수익 발생(1년2억 4천)
매가 13억(보 2억, 용 5억)

2. 북구 우산동 4층 상가주택 건물 대지 120평/건평500평 월 수익 900만, 매가 10억	3. 북구 오룡동 8층 건물 1층 상가, 삼성전자 앞 보 2억, 용 15억 오피스텔 58개 월 수익 3,000만, 매가 35억
4. 북구 상가건물 3층 토지 160평/건물 200평 월 수익 1,200만, 매가 21억	5. 수완지구 상가건물 4층 (우미아파트 밑) 월 수익 900만, 매가 17억

(주)대신 010-6670-9800, 062-952-5584

2층상가 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영산중·영산중고교
대덕아파트 앞
건물 135평, 1.2층 80평
1층-6칸 2층-2칸
(80평 개인사용가)
(분할가능, 주택가능)
월 200만, 용 1억
매가 3억2천
할인 → 2억8천

목포 전원주택 매매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용해동교회
이루시장 1분
금호타운 아파트 바로 앞
노후주택 적합
대지 310평, 주택2채 50평
현 무화과 식재 됨, 과수원
매가 3억 2천
할인 → 2억8천

010-6832-9700

오피스텔 매매 (수익상가)

1.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48평
올 리모델링 완비
천변쪽 방향 전망 좋음.
즉시 입주 가, 임대 가
보 1천, 월 70만 (용 5천)
48평 매가 1억 5천
할인 → 1억1천
2. 서구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15평
내부시설 완비
임대 완료
보 300만, 월 33만
(용 1,300만)
15평 매가 5,000만
3. 쌍촌동 원룸
운천역 1분
매가 3500만
4.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정연 오피스텔 3층 32평
매가 1억1천만
(보1천, 월70만, 용5천만)

062)527-7600

경매 무료 교육

운암점 챔피언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육교앞
현대빌딩 8층

기본반 · 고급반
실전반 · 평생반

이제 경매가 대중화 시대
교육화 실천가능

010-6832-9700
062)513-4900

경매 무료 교육

상무지구 12월 1일

12월 1일 오픈(상무지구)

최고의 실전반 모집중

010-6670-9800
062)382-5500

(주)대신경매 추천물건

근린시설 · 근린주택

- ① 서구 화정동 (토 171㎡, 건 501㎡) 감평가 2억7천 최저가 1억9천
- ② 서구 화정동 (토 372㎡, 건 1255㎡) 감평가 10억 최저가 5억7천
- ③ 동구 동명동 (토 838㎡, 건 2190㎡) 감평가 17억 최저가 11억
- ④ 서구 치평동 (토 1599㎡, 건 17380㎡) 감평가 223억 최저가 156억
- ⑤ 광산구 쌍암동 (건 328.72㎡ 지분매각) 감평가 1억9천 최저가 2천2백

광주 시외지역

- ① 목포시 산정동 (토 1045㎡) 감평가 7천4백 최저가 4천1백
- ② 장성군 삼계면 (토 1068㎡, 건 631㎡) 감평가 2억5천 최저가 1억4천
- ③ 목포시 무안동 (토 72㎡, 건 115㎡) 감평가 1억 최저가 7천

토지

- ① 광주 광산구 쌍암동 (토 3974㎡) 감평가 45억 최저가 25억 (상업지역, 최고위치, 오피스텔, 도시형 주택적합)
- ② 광산구 송치동 (토 786㎡) 감평가 7천4백
- ③ 광산구 송정동 (토 35㎡, 지분매각) 감평가 1천 최저가 240만

특수물건

- ① 서구 광천동 (토 235㎡, 건 980㎡) 감평가 7억8천 최저가 4억3천
- ② 북구 신안동 (토 480㎡, 건929㎡) 감평가 8억 최저가 5억6천

경매학원 배우실 분 연락요망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신 분(직원채용)

010-6670-9800, 062)952-5584